

## 결혼과 이혼

▣ 자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고, 이 강당에 올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날을 주관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내 일과 영원을 다 주장하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가 그 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실임을 아십니다. 남은 하루를 당신을 섬기면서 보내도록 우리 자신들을 당신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up>2</sup> 앉으시기 바랍니다. [브래넘형제가 강대상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한다, “여기 또 하나 있군요.”--주]

<sup>3</sup>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청중들과 오늘 아침 전화선으로 연결해 듣고 계신 전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청중들. 이 곳에 와서 이 중대한 주제를 두고 오늘 아침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보이는 청중들에게는 좀 혼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바로 앞에는 커튼들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에 대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청중들에게는, 저는 제 오른쪽으로는 강당이, 왼쪽으로는 또 체육관이 있고, 저는 마루에 서 있고, 사이에 커튼들이 젖혀져 있어서, 제 양 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당과 체육관이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또 저 아래 에이쓰 앤 펜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도 역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여러 곳에서는, 전화선을 연결하여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sup>4</sup> 그 동안 우리는 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으므로, 오늘 아침 이 예배 시간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은 나흘 간의 전도 대회를 마감하는 시간이므로, 어, 우리는 정말로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오시도록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뭔가 심히 기상천외한

일을 하심으로써, 늘 하시듯이, 아픈 분들을 모두 고치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든지 함으로써, 훌륭하게 끝마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모든 교파에 계신 모든 교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들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시라고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sup>5</sup> 이제 저는 청중들이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제가 긴장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할 것들은 심판날에 저를 대적할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Eng. p. 2)

<sup>6</sup>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토론할 대 주제는 결혼과 이혼입니다. 제가 주일 학교식으로 하고자 한 이유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르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sup>7</sup> 그런데 제-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계시든, 어느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손에 이 테이프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테이프를 배포하게 된다면. 저는 교회가 그 테이프로 어떻게 할 지 모릅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배포하기 전에 교회 이사회를 만나라고 프레드형제님께 부탁 하려고 합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계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싸쓰만형제님에게 무슨 말을 듣기 전에는 그 테이프를 밖으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sup>8</sup> 자, 만일 그 테이프가 배포되어, 이 주제로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시는 목사님인 형제님들이든지, 아니면 아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비난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르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목사

로서, 목자로서, 그럴 권리を持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존중합니다.

<sup>9</sup>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두 갈래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만일 두 개의 의문이 있다면, 둘 중 하나가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이 성경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sup>10</sup>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기, 아니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특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보이지 않는 청중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11</sup> 자 우리는 이 진술을 하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삶과 죽음 사이에서처럼 그 말씀을 붙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믿으면서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많은 분들은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역을 통해서, 제 말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 오늘 아침 이곳은,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분이고, 카나다에서도 오셨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한 종착지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에 접근하게 원하는 겁니다.

<sup>12</sup> 자 저는--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자매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할 말을 몇 개 바꾸었습니다. 저기 있는 빌리는 오늘 아침, 주머니 속에, 섞인 회중들 앞에서 말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ng. p. 3) 제가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하는 말로 받아 들이십시오, 제가 아는 최선의 말이니까요. 여러분이 의사 앞에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의사는 여러분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은 남녀 여러분, 제 말에서 잘못된 인상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진술되어야만 합니다.

<sup>13</sup> 그런데,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만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것이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sup>14</sup>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반이나, 어쩌면 좀 더 길게.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sup>15</sup> 자, 다시 한 번,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담임 목사에게 매달립니다. 물론, 저도 담임 목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sup>16</sup>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처럼, 목사의 말에 매달립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사제의 말에 매달립니다. 물론, 목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제도 역시, 사제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물론, 목사는 정말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제가, 자기의, 신학교와 수도원에서 배운 모든 걸로,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배운 바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sup>17</sup> 어, 그런데, 저는 아무런 신학교나 수도원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독특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sup>18</sup>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에게는 보이고 들을 수 있는 징조가 주어졌었는데, 제가 일곱 살이었을 때, 저 위 유티카 파이크에 있을 때, 수풀 위에 불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최근에 돌 아가신 오. 에이취. 왓슨씨네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셔서,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다음에 그것은 저 아래 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그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고, 워싱턴 디. 씨이. 종교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진으로 찍힌 유일한 초자연적 존재로서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었던 동일한 불기둥이고, 모양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영의 형태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Eng. p. 4)

<sup>19</sup> 왜냐하면 그가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인자”라고 불리웠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천년왕국에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 대해서 말해진 대로 인자,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초자연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올 위대한 천년왕국에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다윗의 아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실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다윗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sup>20</sup> 그런데 유별나고 독특한 사역을 맡고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마귀”라는 소리도,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그런 식입니다.

<sup>21</sup> 저 아래서 며칠 전 날 밤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 “브래넘형제,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성경말씀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 “당신의 사역은 분명하게 교회 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 “루터교인들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하기, “루터교인들은 루터를 알았습니다. 웨슬리인들도 웨슬리를 압니다. 하지만 오순절교인들은 어 떻습니까?” 말하기,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길, “주교님, 그 말을 감사드립니다.”

<sup>22</sup>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 부인에게,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에게 임하였고... 말을 하고 똑같은 일들을 증명했습니다.

<sup>23</sup> 자, 제가 오늘 아침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길, “주교님,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입니다.”

<sup>24</sup> 제가 한 가지 아는게 있다면, 무슨 일인가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그저,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립니다. 그게 뭐니까?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고백하자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제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제게 말해주신 분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는 감히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sup>25</sup>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는 말하길,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다고 말한다,” 라든지 기타 등등,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다고 증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sup>26</sup> 그리고, 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불기둥이었는데, 그것은 영의 형태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로고스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sup>27</sup> 그리고나서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압니다. (Eng. p. 5)

<sup>28</sup>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배운 바와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그 당시 탁월한 스승들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

하에서,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수도원에서; 위대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낮에 커다란 빛, 불기둥이 또 다시, 그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팝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sup>29</sup> 자 여러분이 바울이, 사울이 일어날 때, 한 말을 보시면, 그는 말하기, “주여, 당신은 뉘시오니이까?” 자, 그 사람, 유대인인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없었다면, 분명히 어떤 것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것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불기둥이었습니다.

<sup>30</sup>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간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sup>31</sup> 거기 다시 불기둥의 형태로 돌아가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팝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sup>32</sup> 그리고 우리는 또 알고 있기도 사도 베드로가,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쇠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있었을 때, 이 동일한 불기둥이 쇠창살을 사이로 들어와, 감옥 문을 열고, 신비스럽게, 간수들에게 들키지도 않게, 베드로를 밖으로 나오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sup>33</sup>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성품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것이라도 그것의 성품으로, 그게 맷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맷는, 하나님이신 이 빛이 맷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지켜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확연히 보여서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뭔가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sup>34</sup> 사람들은 절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가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저는 김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게 해 주셨고, 일어났던 일, 일어날 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게 하셨고, 수 천 번 말한 중에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일은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보이는 청중 가운데서,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신 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자유롭게 일어나서 그렇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천 번 말한 것 중에, 매 번 그 일이 정확했다고 아시고 있다면, “아멘”하고 말해 보십시오. [회중이 “아멘!”한다–주] 아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Eng. p. 6)

<sup>35</sup> 무슨 일인가가 곧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일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sup>36</sup>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에, 적어온 종이들 사이에 끼어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커프스 단추를 차고 있는 데...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배우, 제인 러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순절교인이신데; 대니 헨리는 그녀의 사촌, 이종사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이니까요. 그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년 전에 어느 모임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있었던 실업인들의 모임에 서 있었습니다.

<sup>37</sup> 저는 굉장히 강력한, 강한 진술을 막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의 총 감독중의 한 사람인, 감독이, 앉아 있던 발코니에서 내려와 강대상으로 오더니, “저는 브래님형제가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sup>38</sup> 저는 말하길, “진심으로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그 때,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sup>39</sup> 바로 그때, 실업인이었던 이 청년이... 그의 형제는 여기... 그는 그 날 아침 거기서 텔레비전에 내보낼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형제는 캘리포니아주 도로 공사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대니 헨리가 모임이 끝나자 앞으로 걸어나와서 강대상으로 와서는, 이렇게, 제게 두 팔을 들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래님형제,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하길, “그것은 계시록 23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계시록은 이십 이 장뿐입니다. 그는 말하길,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자 마자...자, 그 청년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 팔을 제게 두르고 있을 때, 그는 모르는 말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up>40</sup> 그가 모르는 말로 얘기를 끝내자, 제 앞에는 피부가 검은 뚱뚱한 한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더니, “그것은 통역할 필요도 없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저는 루지애나주 쇠리브포트: 아니 루지애나주 바튼 루취에서 왔습니다.” 말하길, “그것은 분명히 불어입니다.”

<sup>41</sup> 또한 거기에 앉아 있던, 프랑스인이었던, 빅터 르 디우도 말하길, “정말입니다,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불어입니다.”

<sup>42</sup> 저는 말하길, “잠깐만요.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당신도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적고, 당신도 이 사람이 한 말을 적으십시오. 당신이 한 말을 적으십시오, 어디 당신들이 적은 것들을 봅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적었고, 다른 한 사람도 적었습니다, 구두점까지도 똑같았습니다.(Eng. p. 7)

<sup>43</sup> 다음에 그들이 적은 종이를 가지고 앉을 무렵에, 질생긴 짧은 금발머리의 청년이 뒤에서 걸어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나오더니, 말하길, “잠깐만요, 제가 적은 종이도 받아주십시오.” 그는 말하길, “저는 유엔(UN), 국제 연합기구에서 불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제가 적은 것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sup>44</sup> 그런데, 여기, 이 세 개의 종이는 다 똑같은 말로, 불어였습니다. 거기 에 쓰여 있던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은 원본에서 취한, 곧바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니가 직접 적은 것으로, 그가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 실업가들과 기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네가 좁은 길을, 더 어려운 길을 택하였으므로; 너는  
네가 택한 길을 걸었도다.

너는 올바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길은 내  
길이다.

네가 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하늘의 막대한 부  
분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네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결정을 내렸도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나큰 승리를 가져  
다 줄 것이고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sup>45</sup> 자, 그 사람은 여기에다 서명을 했습니다. “상기한 내용은, 대니 헨리가 브래님형제에게 한 예언에 대하여, 세 사람이 통역한 것으로, 캘리포니 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식당에서 세 증인이 증명하였습니다.”

<sup>46</sup> 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예언을 한 이 청년은, 한 달 전에 예루살렘엘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뒤 묻혔었던 무덤에 가서--누워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아주 강하게 제 생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길, “그동안 브래님형제가 세상과 이런 일들과, 모든 교회들을 반대하면서 서 있었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sup>47</sup> 전에 빌리 그래함 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길, “우리는 빌리 그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 편에 서서 다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들에서, 오럴 로버츠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에 반대하는데, 우리는 도 대체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sup>48</sup> 그런데, 대니가 취미로 하는 일은 조그마한 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십자가가 내려졌었던 곳으로 걸어가서, 그들이 바위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다고 말하는 곳에. 아무도 옆에 없을 때, 그는 바위에서 조그마한 돌을 떼어내 기념물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집에 와서 제게 그 돌로 커프스 단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Eng. p. 8) 그 돌들은 피에 물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돌을 나란히 놓으면, 연결되어서, 곧고 좁은 길이 그 두 돌 한 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그저... 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은 제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찬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sup>49</sup> 이제, 이 시간에, 주님이 뭘 가지고 계신든지간에.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말라기 4장, 또 누가복음 17장, 기타 다른 성경말씀들, 끝마치면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반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그런 식이 된다면, 교육도 받지 못한 제가, 제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감사드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sup>50</sup> 그러므로, 진지한 마음으로, 저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 주제에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sup>51</sup> 이제 잘 들으십시오. 자매님들, 일어나서 나가지 마십시오; 잠시만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형제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밖에서, 이 전화선으로 연결해 듣고 계신 분들도, 끄지 마십시오. 끄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잠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자세히 들으십시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성경구절들을 적으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구절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제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sup>52</sup> 자, 어쩌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모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자세하게 연구합시다.

<sup>53</sup> 마태복음 19장에서 시작합시다. 처음에, 제 생각에는, 19장 8절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8절까지 쭉 읽도록 합시다.

<sup>54</sup> 자, 명심하십시오, 제가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건 제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sup>55</sup> 자 제가 19장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겨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  
더라... (Eng.p. 9)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sup>56</sup>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시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  
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려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들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려므로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sup>57</sup> 예수님은 이 성경말씀, 이 질문을 사역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직면했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부딪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죄인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자기가 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에 대하여 질문이 일어나면, 결혼과 이혼 건이 나옵니다, (왜죠?) 그것은 원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맨 시작이기 때문에, 매번 거론되는 겁니다.

<sup>58</sup>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거나 그러신다면 저는 기꺼이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쓴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문에서 오려낸 것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브였다는 것을 압니다. 이브가 사과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살구를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살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브는 간음을 했고, 첫째 아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사탄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인 안에는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벨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sup>59</sup> 저는 지금 여러분이 던질 질문을 압니다, “이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sup>60</sup> 도시에서 가장 저질인 여자와 가장 못된 남자가 가령 애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법칙들을 함께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땅에다 가라지를 심어보십시오, 자랄 것입니다.(Eng. p. 10)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자리야만 합니다. 씨가 심겨지면, 그 씨는 자리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것도 생명이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씨가 이브의 자궁 안에 심겨졌을 때, 그 씨는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했습니다.

<sup>61</sup>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sup>62</sup>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이를 위해서 대속합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나든, 얼마나 악하게 태어나든 말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회개할 것이 없으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간 세상 죄였습니다. 애기들은 천국에 갑니다.

<sup>63</sup> 그것은 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그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커다란 현상들이 오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질문은, “결혼과 이혼은 어떻습니까?”입니다. 자, 항상, 그것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그건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인 것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sup>64</sup> 하지만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해답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해답

은, 제가 전에, 이 번 주에 말했듯이,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대한 답을 받는데, 그 답이 옳지 않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 질문이 옹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질문이므로, 성경에서 나온 해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sup>65</sup> 제가 말하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면; 제가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은, 저는 들에 있는 어떤 뭔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동쪽이었고, 저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브래님형제, 이 쪽이 동쪽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동쪽입니다. 그러나 북동쪽입니다. 저는 제가 찾고 있던 목표물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잘못 갔다는 것을 알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말한다면, “브래님형제, 이 쪽으로 가세요, 오른 쪽으로요.” 자, 그 쪽도 동쪽은 동쪽일 테지만, 남동쪽입니다. 저는 완전하고 정확한 길의 경계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찾고 있던 목표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sup>66</sup> 자,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두 갈래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 쪽 사람들은 말하길, “남자는 자기 아내가 죽지 않으면 한 번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질문들 가운데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은 말하길, “오, 아내나 남편이나, 둘 중 하나가 간음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버리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으로도 극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Eng. p. 11)

<sup>67</sup> 그래서, 아시겠죠, 남동쪽도 아니고 북동쪽도 아닙니다: 우린 정확하게 동쪽을 원합니다. 이 쪽으로 가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저 쪽으로 가도 성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과 만나는 곳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택해서 가다가, 정확한 답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sup>68</sup> 그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두 파의 커다란 교리와 같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이고, 다른 파는 아르미...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한 쪽은 율법주의자이고 한 쪽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말하길, “하나님을 축복하라, 전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전 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일을 해도 돼요, 저는 영원히 보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율법주의자들 편을 보면, 말하길, “오, 저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니까, 조용히 있어야겠어.” 아시겠죠, 두 갈래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립니다. 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sup>69</sup>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한 쪽은 한 길로 가고, 서로 다른 길을. 이제 진리가 뭔지 봅시다.

<sup>70</sup> 자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옳게 들리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러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는...여보, 난 해외에 갈거요.” 자 이제 율법주의자의 말입니다. “자, 아내여, 당신에게 법을 두고 가겠소! 만일 당신이 내가 없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면, 당신은 나하고 이혼하는 줄 아시오. 당신 눈짓도 보내지 말고, 당신 바람 피우지 마시오! 알아들었소? 난 당신 남편이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돌아와서 당신을 내쫓겠소.”

<sup>71</sup> 다음에 아내가 다가와서는 제 넥타이를 거며쥐고, 말합니다, “당신, 나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아시겠죠, 아시겠죠, 만일 다른 여자에게 눈짓을 보내거나,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당신이 돌아오면 나와 이혼하는 줄 아세요.” 자,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좋습니다.

<sup>72</sup> 자, 다른 쪽은, 만일 제가 해외를 나가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가서는 말하길, “자, 봐,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야지. 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아내는 신경쓰지 않아.” 제 아내도 말하길, “이 남자와 함께 나가야지. 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거야, 빌은 신경쓰지 않아.” 제가 신

경쓰지 않는다면, 제가 뭔가 잘못된 걸 겁니다: 저는 그 여자를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신경쓰지 않는다면, 아내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저는 다른 남자가 그녀와 놀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sup>73</sup> 자, 그 일의 올바른 방법은, 둘 다 진리는 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리는 아닙니다. (Eng. p. 12)

<sup>74</sup> 자 제가 해외에 갈 때는, 올바르게 하려고, 제 조그마한 가족들은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해외로 가, 저는 해외로 갑니다. 자, 저는 아내가 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제게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상, 아내는 제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니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절 올바로 사랑한다면, 아니, 제가 다른 남자가 그녀와 함께 나가지나 않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는 제 아내이고 저는 아내를 믿으니까요.

<sup>75</sup> 제가 믿기로는, 만일 제가 실제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해서 어떤 여자와 함께 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고백하고, 아내에게 말하길, “미다, 난 그럴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었소. 난 덮에 걸렸을 뿐이야; 이 여자가 곧바로 달려들어서는, 팔을 붙잡더니, 이리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소,” 한다면, 아내는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절 용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절 용서해 줄 거라고 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제 행동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저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sup>76</sup>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가... 만일 필리오 사랑이, 즉 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의 사랑, 남자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면, 아가포 사랑은,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상,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하간... 말하자면,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서 그렇게 합니다. 올법주의는, 제가 그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두 학파가 있습니다. 올법주의도 아니요, 다른 것, 아니,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sup>77</sup> 자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여러 교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톨릭교회도 있고, 개신교 교회도 있습니다. 각자 다 자기들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말하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up>78</sup> 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sup>79</sup> 그러므로, 어젯밤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경배할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개신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침례교인, 아니면 오순절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안으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그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물 침례는 여러분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 침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Eng. p. 13)

<sup>80</sup> 우리는 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의 일곱 인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제 교회는 이해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환상들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성경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창세 이후로 감춰졌었던 모든 감

춰진 비밀에는 진짜 해답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이들 비밀들이 알려지리라고 예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일곱째 천사,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자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 의 비밀이 알려지리라.”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 즉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sup>81</sup> 십오 년 이상 부흥이 많이 있어왔지만 거기서 교파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루터가 부흥을 가지면, 교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웨슬리도, 교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캠벨, 교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커다란... 잔 스미쓰와 등등, 교파들, 무디와, 다른 모든 것들. 그러나 여기에는 한... 대개 신앙 부흥은 삼 년 가량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건 십 오 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파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씨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껌데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껌데기가 벗겨지면, 그것은 씨입니다.

<sup>82</sup>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만일 지금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완전함에 이르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딘가에 해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인봉된 비밀, 일곱 인이므로.

<sup>83</sup> 몇 분이나 그 말을 이해하시는지,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봅시다. 대부분은 이 곳 주변에 사시는 우리 회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주제에 대한, 책들이 곧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sup>84</sup>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성서적인 해답을 얻으려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sup>85</sup>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남자가 아무 연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말하길,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sup>86</sup>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잠시 사이를 띄우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함이라;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질문!

<sup>87</sup> 오늘날 세계 평화에 대한 질문처럼, “정치로, 국가 연합으로, 평화가 올 것인가?”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그것은 항상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인가?”(Eng. p. 14) 네, 이 땅에서 죄가 제거될 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없앨 처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sup>88</sup>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방을 주셨고, 우리 아내와 결혼하여 그들과 함께 사는 길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sup>89</sup> 질문은, 예수님의 우리가 돌아가도록 원하시는 진짜 해답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창세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씨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들에 어떤 씨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확물이 어떤 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씨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어떤 씨가 심겨졌습니까? 창세기는 씨 장이므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그 때는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영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거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돌

아간다면.

<sup>90</sup> 자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천천히 말하고자 까닭은, 전화선으로 듣는 분들과, 테이프에서 분명하게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sup>91</sup> 만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땅에는 뭐든 시간에 오직 한 쌍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이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암말 하나, 수컷 하나; 암 앵무새 하나, 수컷 하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뭐든지 한 쌍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어떤 것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sup>92</sup>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아직도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별들과, 은하계와, 태양계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계획 전체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sup>93</sup> 자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십니까? 한 가지 방해는 계획 전체를 망칩니다! 자, 인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을 때, 이 여자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계획 전체를 하나님과의 연계성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한 마디를 더하거나, 한 마디를 빼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연계성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과의 연계성에서 떨어지게 하고, 가정을 하나님과의 연계성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밖으로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Eng. p. 15)

<sup>94</sup> 다음에, 그 아름다운 가정이 파탄나게 한 것은 여자였습니다. 땅을 괴롭힌 것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하여, 모든 것을 연계성에서 끊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 이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여기서 그게 파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하나는 수컷으로, 하나는 암컷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암

말이 아니고, 암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땅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직업의 연계성 모두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사망에 던져버렸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자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들을 밟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이브가 자기 남편과의 언약을 깼다면, 그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때, 이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sup>95</sup>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과 언약을 어기면, 그것이 사생아 교인들을 너무도 많이 생기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어,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계성에서 끊어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존스 박사님은 그 말씀은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의 말은 거짓되다 하고, 내 말은 진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연계성이 끊어집니다.

<sup>96</sup> 자 우리는, 그 연계성이 끊어지고나서, 생명 선이 끊어졌고, 또한 시간의 선이 끊어졌고, 언약이 깨어졌고,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난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것을 읽고 싶다면,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up>97</sup> 자, 그 때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더이상 남자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는 본래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적고 싶으시다면, 창세기 3:16입니다. 여자는 더이상 남자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였습니다.

<sup>98</sup> 여러분, “여자,” 여자, 여기 아래 있는 교회를 보시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 자기에게서 연계성을 모두 끊어버린 자. 그게 교회가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전체에다 영적인 사망을 던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sup>99</sup> 보십시오, 왜 그녀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완벽한 여자가?(Eng. p. 16)

<sup>100</sup> 저는 한 번은 그림을 보았는데, 그리이스에서 였을 겁니다. 이브를 그린 어떤 화가의 그림. 그 이브는 정말로 못볼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브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한 여자, 온통 여자다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sup>101</sup> 보십시오, 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던 이브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브는 남자와 함께, 남자와 동등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남자와의 동등성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제부터는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건 성경입니다.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sup>102</sup> 여러분에게 성경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국에 전화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도록.

<sup>103</sup>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탄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까?

<sup>104</sup> 여러분 사탄은 한 때 하나님과 동등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정말입니다, 창조자인 것 말고는 전부 다; 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에서 위대한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sup>105</sup> 이브가 이렇게 한 이유를 보십시오, 이브는 첫 창조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첫 창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언급하신 “처음에는”, 여자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처음”이라고 언급하셨을 때에는, 남자의 부산물입니다.

<sup>106</sup> 명심하십시오, 첫 창조시, 아담은 남성과 여성 둘 다였고,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갈빗대 하나로 나뉘어졌습니다.

<sup>107</sup> 보십시오, 한 부산물이었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동물들과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 여자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유일한 자였습니다. 다른 암컷은 다 첫 창조에 들어 있었습니 다. 다른 모든 암컷은 첫 창조에 들어 있었지만, 이브는 첫 창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보십시오, 이브가 들어 있던 이 창조에서, 첫 창조에가 아니라, 부산물에. 그런데 이 창조에서, 거기 있는 것이...

<sup>108</sup> 이제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만히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sup>109</sup> 속이는 여자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도록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p>110</sup> 또한, 여자처럼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 타락이 이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타락이.

<sup>111</sup> 이브는 첫 시작의 창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성 안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Eng. p. 17)

<sup>112</sup> 자, 여자처럼 쉽게, 속일 수 있고,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자처럼 저질 상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자처럼 낮은 상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쉽게 남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는데, 그의 아내입니다. 그 좋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게 되면;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돼지도, 개도, 여자처럼 지음받은, 여자처럼 낫게 타락할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건 사실입니다.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sup>113</sup> 어떤 동물도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를, 암개를, “더러운 개”라고 부르고, 숫...돼지는 “암퇘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덕성이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도덕성보다 수백만 배나 높습니다. 그 정도로 낫게 여자는 타락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낫게 타락할 수 있고, 부도덕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sup>114</sup>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잠깐만요, ‘남자는’!” 그것도 알아볼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그려세요”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sup>115</sup> 보세요, 여자처럼 그렇게 저질로 타락할 수 있도록, 더럽게 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도 그럴 수 없고, 돼지도 그럴 수 없고, 새도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동물이라도 부도덕하지 않고, 그럴 능력이 없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부도덕할 수도 없습니다. 암퇘지는 부도덕할 수 없습니다. 암개도 부도덕하지 못하고, 암컷 새도 부도덕하지 못합니다. 여자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sup>116</sup> 이제 여러분은 사탄이 어디로 갔었는지 보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그녀는 “네”나 “아뇨”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자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디서 뱀의 씨가 들어왔는지, 뱀의 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은 딱 한 군데 뿐입니다. 만약 그게 뱀의 씨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눈이 먼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sup>117</sup> 보십시오, 동물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암컷 동물이, 그들

은 맨 처음 창조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첫 창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보고, 다음에 성경으로, 현대로까지 내려와 보겠습니다.

<sup>118</sup> 여자는, 여자만, 더러움과 부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개도 그럴 수 없고, 다른 암컷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만 그럴 수 있습니다. 개나 다른 동물들은, 일년에 한 번, 그것도 새끼들을 배기 위함입니다; 성적 쾌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끼를 배기 위함입니다. 늙은 암퇘지나, 늙은 암퇘는, 일 년에 한 번, 한 순간만 그러는데, 그것은 새끼를 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를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머지는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는 할 수 있지만, 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가 여기서 건너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ng. p. 18)

<sup>119</sup> 여자는 암컷 중에서, 남성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유일한 종(種)입니다. 다른 것들 가운데 또 그런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동물들을 봐도, 새들을 봐도, 다른 것들을 봐도, 항상 수컷이 잘 생겼습니다.

<sup>120</sup> 큰 수사슴을, 보기 좋은 큰 뿔들, 위대한 종인데; 조그마하고, 암전한 암사슴을 보십시오. 예쁜 깃털을 입은 커다란 수탉과 조그마한 갈색 암탉을 보십시오. 새들을 보십시오, 수탉과 암탉을 보십시오. 어째서, 어째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랬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수컷이 가장 잘생긴 겁니다. 양들을 봐도, 돼지들을 봐도, 말들을 봐도, 어떤 것을 봐도, 항상 큰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새들도 그렇습니다.

<sup>121</sup> 하지만 인류를 보면, 예쁜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남자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딘가에 잘못된 씨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식입니다. 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의 디자이너인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여전히 여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sup>122</sup> 잠시만 좀 멈추겠습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이 멸망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그게 맞습니까?

<sup>123</sup>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증가한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펠 오브라이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로 따지자면, 이 학교에 다니는 십대 소녀들이 다 그녀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sup>124</sup> 여자들의 미가 증가되는 것은 시대가 속이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언제 교회가 오늘날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모든 것이 크고, 거대한 멋진 건물들을 크게 여기고 있고, 수백만 달러짜리 이것 그리고 수백만 달러짜리 저것 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보시지 못합니까, 속임수입니다!

<sup>125</sup> 자, 어떤 것도 여자처럼 타락할 수 없고, 여자는 속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여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로 곧장 돌아가보면, 누가 여자를 움직이기 시작 했습니까, 아담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아시겠죠, 사탄이 여자의 디자이너입니다. 남자를 자기의 더러움에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자기 맘대로 흔들 수 있습니다. 형제님, 남자를 잡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술집이 아닙니다; 반은 벌거벗고, 몸을 흔들면서, 길거리로 걸어가는 예쁜 여자입니다. 그게 일어난 일... 그게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치명타를 입힙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여러분은 제게 사탄이 여자의 디자이너라는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탄이 여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있습니다. (Eng. p. 19)

<sup>126</sup> 성경에서 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성경으로 모시고 가서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보고서 의견을 얻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sup>127</sup> 사탄은 그런 류의 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자입니다. 보시면, 그는 하늘

에서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미가엘의 왕국보다 하늘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맞죠? 또, 가인이 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는 더 아름다운 경배를 드렸고 과일들과 꽃들과 기타 등등으로 제단을 꾸몄습니다. 맞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죄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를 다니는 여자를 보고 그녀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사탄이 왜 그녀의 디자이너인지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정말로 맞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인,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녀는 아름다운데 그래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sup>128</sup> 세상은 아름다워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스모스(*kosmos*), 세계 질서 체계를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서 속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멋진 장소들과 화려함.

<sup>129</sup>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아모스가 올라가 성을 내려다 보고, 그것이 현대판 헐리우드처럼 된 것을 보고,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흰 머리 아래서, 그의 작은 두 눈은 작아졌습니다. 그는 거기로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가 그 곳에다 메시지를 펴뜨렸습니다. 그는 말하길,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리라!” 맞습니다.

<sup>130</sup> 죄는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길 모퉁이 어딘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주정뱅이, 벌어진 입으로 파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를 그려놓습니다. 유다는 잘 생기고 힘이 세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치근대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작업복을 걸치고 들어오는 (늙은 농부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기꾼입니다, 그는 악당입니다.

<sup>131</sup> 죄는 세상의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류의 미를 크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크게 보십니다.

<sup>132</sup> 성경에서, 이사야 53장, 성경 구절을 적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여기 한 쪽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줄의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성경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도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키가 작고, 어깨가 굽고, 흥안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지도자다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얘기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어떤 위대한 학자나, 교양있고, 훌륭한, 말쑥하게 차려 입고, 등등,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Eng. p. 20) “우리 보기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듯,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sup>133</sup>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새의 집으로 올라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사울 대신 왕으로 기름부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셨습니까?

<sup>134</sup> 자, 사람들은 사울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말라고 완강하게 말했는데도. 그는 말하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말하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쓸려고 여러분에게 돈이나 뭐, 그런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sup>135</sup> 그들은 말하길, “아뇨, 당신은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택한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택한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그들은 전국에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와 어깨가 올라오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거대하고, 훌륭한, 잘생긴 사람을, 그런데 그는 항상 옥의 티였습니다.

<sup>136</sup>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접 너희에게 왕을 택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사무엘아, 나는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거기로 올라가거라. 그는 이새의 아들이다.”

<sup>137</sup>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내와, 그들 모두는 주변을 둘러보고, 말하기, “네, 우리 장남, 그 애는 크고, 키도 크고, 잘 생겼습니다, 그 애는 왕관을 쓰면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그 앤 영리합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성격도 좋습니다. 저는 그 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 한답니다.”

<sup>138</sup> 그들이 장남을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쥐고 그에게 간습니다. 그는 말하기, “아뇨, 주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아들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 “아들이 또 없습니다까?”

<sup>139</sup> “오,” 이새는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는 저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앤 거기 앉아서 노래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답니다. 하지만, 좀 작고 어깨가 굽었고, 얼굴이 불그스레합니다, 그 앤 왕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sup>140</sup> 사무엘은 말하기, “가서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다윗이 선지자의 앞으로 들어올 동안, 선지자는 기름을 가지고 달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하기, “이 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품. 하나님은 성품을 보십니다.

<sup>141</sup>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그 아름다움을 준 겁니다, 속임수, 속이기 위해서.(Eng. p. 21) 아름다운 여자는, 그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그녀를 더 빨리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저... 물론, 예쁘면서,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진실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속이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sup>142</sup> 보십시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크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흡모할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와 같은 성품은 결코 없었습니다.

<sup>143</sup> 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성품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 그 목사님은, 재미있는 이런이런 시간, 아무 아무개, 긴 성의를 걸치고 걸어나오시는데 너무나도 성직자답고 신성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sup>144</sup>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은 입증된 말씀의 성품을 찾습니다.

<sup>145</sup>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 그게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품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분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sup>146</sup> 그게 그들, 요압과 그 인물들이 조그마한 사람인 다윗에게서, 하지만 그들은 다윗 안에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윗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고, 그가 어느 날엔가는 권력을 잡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 용사는 한 손으로 골리앗의 다섯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은 삼백명을 죽였습니다; 여자들 몇몇이 저녁으로 먹을 콩을 줍고 있고, 군대가 떠나버렸을 때, 그는 창을 쥐고 삼백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성품입니다! 왜죠? 그들은 다윗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했음을 알았고, 그가 권력을 잡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sup>147</sup> 말씀을 불들고 서 있을 오늘날의 교회의 순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게 입증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느 날엔가는 권력을 잡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온 나라에서 도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권세를 받고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불들고 어떤 대가를 치루든지 거기에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인들을 쳐야하거나 구덩이에 뛰어들어 사자를 죽여야 한다면, 한

용사가 그렇게 했죠. 우리는 어찌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놓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품을 찾습니다.

<sup>148</sup> 이제 여러분은 제게 물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저는 시간을 너무나 길게 잡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는 질문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자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말입니다. (Eng. p. 22)

<sup>149</sup> 자, 잠시 성경을 넘겨,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9장으로 가 봅시다. 잠시만,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로마서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  
뇨...

<sup>150</sup>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을 때, 아니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거절하셨을 때, 두 아이가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기도 전에, 둘 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  
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  
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십시오)... 하  
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  
팍케 하시느니라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  
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헐문하느뇨 지  
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  
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  
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  
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반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sup>151</sup> 잠시 그것과 논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  
오분 정도만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ng. p. 23)

<sup>152</sup>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영원한 분입니다. 태초에, 시작  
이 있기도 훨씬 전에, 그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를 경배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셨습니다.

<sup>153</sup>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속성이 뭐죠?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밤에 들을 말씀의 테두리가 될 일부분을 들으실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안에 있던 그분의 속성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고, 아들의 속성이 있었고, 구세주의 속성이 있었고, 치료자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만 그분의 속성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을 모르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도 순서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분의 속성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sup>154</sup> 자,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어,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그를 평등하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sup>155</sup> 자, 그는 뭔가가 잃어버려지지 않으면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뭔가가 아프지 않다면 치료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속성들이 나타내지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기도 전에, 그가 구세주이셨음을 압니다, 그는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는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잃어버려져야만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sup>156</sup>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고, 공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위대한 심판주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맞지 않게 일하시는 게 될 것입니다.

<sup>157</sup> 그래서 그는 인간을 여기 밖에다 두셔야 했고, 그를 자유 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어, 그가 타락하게,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신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첫 창조에 들지 않은 뭔가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타락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손 안에, 진노의 그릇으로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귀히 쓰는 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잘 보십시오.

<sup>158</sup> 다음에 또, 왜 여자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다른 암컷들과 같지 않으며, 왜 여자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다른 암컷과 다릅니까? 다른 암컷들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으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암컷, 여자를 다른 암컷들처럼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자를 똑같이 만들고 얘기들이나 키우도록요? 그러면 그녀는 남편을 두고 살고, 얘기를 벨 때가 되면, 얘기를 가지게 말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은 여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Eng. p. 24)

<sup>159</sup> 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해하신다면, “아멘”하고 밀해보십시오. [회중이 “아멘”한다-주] 네. 아시겠죠? 여기에는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동물들은 일 년 중 어느 특정한 때가 이르러야만, 자기 짹을 찾고, 그러면 그게 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때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sup>160</sup> 자 우리가 여기서 쪽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 완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sup>161</sup>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자를 나머지 암컷들처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결함의 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여자를 불들게 하셨고, 왜곡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렇다

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sup>162</sup>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모든 작품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첫 작품들은 다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암캐, 수캐; 아시겠죠, 암소, 솟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씨가 죽어, 땅으로 들어가고; 죽음, 장사, 부활과 똑같습니다. 수액이 나무에서 밑으로 내려가,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다음 해에 새 잎으로 부활해 돌아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자연도, 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로; 여기에 하나님의 연속성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지음받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첫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sup>163</sup> 오, 지금, 여기서 이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교회의 왜곡성을요? 첫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왜곡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내놓은 이 왜곡된 것을 보십시오.

<sup>164</sup> 하나님은 암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보십시오, 그것의 징후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 동안 그것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이 피조물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탄이 그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처럼, 역시, 십자가로 달려가는게 좋을 겁니다.

<sup>165</sup> 보십시오, 모든 자연은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첫 창조때 여자를 같이 만드셨더라면, 아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자는 첫 창조의 왜곡입니다. (Eng. p. 25)

<sup>166</sup> 모든 죄도 첫 진리의 왜곡입니다! 거짓말이 뭐죠? 진리가 왜곡된 겁니

다. 간음이 뭐죠? 올바른 행위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피조물이 있고, 왜곡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그토록 큰 것입니다.

<sup>167</sup> 남자에게서 난 단 한 조각, 단편이, 그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게 여자가 만들어진 목적이었습니다.

<sup>168</sup> 부도덕한 여자는 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짚은 아가씨들, 이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부도덕한 여자는 인간 쓰레기 통에 불과하고, 섹스 노출일 뿐입니다. 그게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인간 쓰레기 통이고, 속에서 추잡하고, 더럽고, 저속하고, 저질스런 더러움이 나오는 오염물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속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죄는 한 여자에 의해서 초래되었습니다.

<sup>169</sup> 시카고에 있는 한 분석가가, 어느--한 여자분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경찰이신데, 그들은 미국에서, 미국 대 도시에서 추적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형태의 범죄의 구십 팔 퍼센트는, 여자가 들어 있거나 배 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sup>170</sup> 지금 제가 이런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끝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sup>171</sup> 여자는 속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여자가 아담에게 한 것처럼, 아담을 속이고 그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열매가 좋았다고, 어쩌고 하고,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일 후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자 위에 다스리기 위해서.

<sup>172</sup> 자 오늘날, 이 개념의 시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남자가 그

너의 지배자가 되지는 않고, 여자는 남자의 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성적 지배로, 사탄에게 받은 그 몸매로, 사탄이 행한 그 부산물로,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이라고 보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어떤 다른 도구보다 여자는 그들을 더 많이 지옥으로 떨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sup>173</sup> 저는 지금 부도덕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여러분의 위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sup>174</sup> 자 오늘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미국의 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 전 성막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Eng. p. 26) 이 현대의 신은, 화장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조그만 건 달 아가씨, 무릎 훨씬 위로 들어 올린 치마를 입고, 그와 같이. 저는 “여러분의 신을 보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모든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반쯤 벗거벗고서. 여자는 거리에서도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sup>175</sup> 그것은 “처음부터,” 사탄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sup>176</sup> 자, 이교도들은 여자를 신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있었습니까?) 여신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여신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배의 과정에서 성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자는 창조자다. 여자는 태에서 씨를 전달하고 창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창조자는 단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돌로 만든 형상, 말하기, “하늘의 여신, 무녀뜨렸도다.” 여러분 이교도의 경배가 어떤지 보시지 못합니까?

<sup>177</sup>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 이교도 송배로 곧장 돌아갑니다, 여자들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피조물, 여자 송배로! 그녀는 자기 맘대로 남자를 흔들 것입니다. 밖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만, 속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녀의 문은 음부로 가는 문이니라.”

<sup>178</sup>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5절에서, 니콜라당의 교리, 말씀에서 멀어져 간 그 교회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sup>179</sup> 또한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들 추잡하고 비경건하고, 더러운 프로그램들, 혈리우드의 섹스 퀸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추잡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자들이 여기 거리를 쪼그 마한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몸을 흔들면서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데, 추워서 얼어죽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컷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암컷도 그렇게 하는 것도 못보셨을 겁니다, 어떤 수컷도 그 암컷에게는 다가가지도 않을 겁니다.

<sup>180</sup>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의 뜻이라면, 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니콜라당을 보시고, 그들의 교리를 보십니다.

<sup>181</sup> 여러분은 십대 여왕들을 봅니다, 그렇게 부르죠, 거리에서 벗은 몸을 내보이는. 옛날에는 옷을 벗는 쇼를 볼려면, 그런 추잡한 쇼는 구석진 곳에 가서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눈을 뜨고, 바깥 길거리를 보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게 옷을 벗는 쇼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죠? 관심을 끌어, 유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것뿐입니다.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사탄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정말

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Eng. p. 27)

<sup>182</sup> 오늘날 학교에서도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성 숭배하는 썩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지 않음을 압니다. 낮에는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다가, 밤새도록 여자들과 어울리며 보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자는 하나님의 땅에 두 신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잘 보십시오.

<sup>183</sup>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9-15,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아시겠죠? 또 고린도전서 14: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죠?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를 세웁니다. 성경이 완전히 금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 “율법에서도 이른 것같이,” 성경 전체가 연속성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sup>184</sup> 어린양도 마찬가지였죠, 어젯밤, 경배드릴 유일한 곳은, 어린양이 흘린 보혈 아래입니다. 오늘날도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경배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유일한 경배 장소는 흘려진 피 아래입니다.

<sup>185</sup>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의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베일을 쓴 얼굴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하신 겁니다.

<sup>186</sup>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들을 했었고 그렇게 행동해 왔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겠죠,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 저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빛 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성품.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태초에”부터는 어떠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초로 돌아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sup>187</sup> 자 저는 많은 이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돌아가, 태초로부터 어땠는지 알아보아라,”고 하신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태초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보실 수 있습니다.

<sup>188</sup>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제가 여자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과는 거리가 너무나 멎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바울도 여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불렸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늙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여자들을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sup>189</sup> 하나님의 성도요, 성경을, 신약을 쓰도록 허락된 사람인데, 그가 한 말을 논쟁합니까? 그는 말하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자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ng. p. 28)

<sup>190</sup> 그들은 엘리야를 여자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여자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세벨같은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sup>191</sup> 만일 그랬다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실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에게 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임에 틀림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시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피조물을 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sup>192</sup>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지,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지, 여자

를 위해서 남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몇 분이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회중이 “아멘”한다-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락 전에, 여자는 남자 안에서 자리를 받았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주제를 꺼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자였고, 여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젠 첫 시작이 끝난 후입니다.

<sup>193</sup>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시간이 시작된 때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시 “아멘”해 보십시오. [회중이 “아멘”한다-주] 태초에, 하나님은 암수를 하나씩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 여자는 동물들,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지음을 받아서, 만일 여자가 처음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타락을 초래했고 그 방해는 하나님의 전 연속성을 깨고, 이 땅에 사망과 슬픔과 기타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sup>194</sup> 이제 태초 “이후에”, 태초 후, 시간이 시작된 후를 보십시오; 그 때 전에는 영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브에 의해 있었던 그 타락 이후에, 타락 후에, 다른 언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타락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락 후에, 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언약은 상호 평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 또 다른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자는 더 이상 남자와 같이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언약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sup>195</sup> 이제 그게 맞는지 한 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확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정확하게 사실이며 올바로 제시되었는지. 이제 끝낼려

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주제의 마감 부분에 이르러 이혼의 이유와 사례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지금 3장 16절을 보려고 합니다. 14 절부터 봅시다. (Eng. p. 29)

여호와...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여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족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헛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여자를 통해 나올" 메시야의 구속하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sup>196</sup> 자 보십시오, 이제는 뱀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태초에는 아니 태초 전에는 잘 지냈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더 이상 서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sup>197</sup> 이제 여자는 빙 돌아서, 여자가 지배하는 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아담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sup>198</sup> 두 언약.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작”을 마감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제 또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언약입니다. 자 산물과 부산물에 대해 언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타락으로 고통과 사망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왔고, 모든 자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를 봅시다. 자 지금은 사실 “태초부터”가 아니라, 지금은 태초 “이후”입니다. 이제 이중 언약이 있습니다. (Eng. p. 30)

<sup>199</sup>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 평등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런데 여자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여자가 뭘 하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른 언약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창세기 3:16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른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sup>200</sup> 자 세상은 태초에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피조물들로가 아니라, 본래 피조물들로가 아니라, 성욕으로 재번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초”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태초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수컷 하나와 암컷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 선을 넘고 이 죄를 가져왔을 때, 이제 세상은 성행위로, 피조물로가 아니라, 성행위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 번성되는 방법입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sup>201</sup>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처음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키기 위해서, 성욕이 없이.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더이상 성행위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땅의 흙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다, 어느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흙과 우주 빛들과 석유로 빚어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것처럼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와서 죽을 수 있도록, 이 여자를 통해, 지금은 죄로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sup>202</sup> 이제 여러분은 다음에, 태초 “이후에”, 뭔가 다른 것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십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회중이 “아뇨.” 한다–주] 조금만 더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sup>203</sup> 남자와 여자에게 그 이중 언약이 세워졌을 때, 성행위를 통해서, 전혀 다른 또다른 언약 (첫 언약이 아니라, 또다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도입되었죠? 다처제입니다.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태초 이후에, 다처제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도입되었습니다; 태초 이후, 타락 이후에. 이제 두번째로, 하나님은 성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자연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성행위가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회중이 “아멘” 한다–주] 이제 그것은 자연과의 또다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행위로, 자연을 다른 식으로 정하십니다. 두번째 언약입니다: 수컷 하나에, 여러 암컷; 수사슴 하나에, 암사슴 무리들. 맞습니까? 수소 하나에, 소떼 전체, 암소들; 수탉 하나, 마당에 가득한 암탉들. 맞죠? 다윗 한 사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죠, 오백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다윗에게 여러 여자들에게서 백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 아내가 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태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태초 “후”입니다. 여자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현재의 상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Eng. p. 31)

<sup>204</sup> 다윗, 그리스도를 대표했던 왕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회중이 “아멘” 한다–주] 그리스도는 앉아 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다윗은 오백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오백 명의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육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성행위가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영적인 삶, 창조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죠? 창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sup>205</sup> 보십시오, 이 말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다 집어넣으십시오. 하지만 그들 여자 중 한 여자도 남편을 하나 이상은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첫 피조물이지만 여자는 아닙니다. 그들 여자 중 한 여자도 남편을 하나 이상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남편은 천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 시간을 가지고 그게 시작된 저 옛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보십니까? 그들은 많이 가질 수 있었...

<sup>206</sup>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 그건 이스라엘에서만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sup>207</sup>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당시, 백 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젊은 여자로 변화되었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고 싶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고 싶어했습니다. 어쩌면 후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면, 사라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취하려고 날 죽일 것이니, ‘내 오라비’라고 말하시오.” 왜 아비멜렉이 자기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신자들에게 법이었을 뿐 아니라, 피조물 안에 든 모든 백성들에게도 법이었던 겁니다. 죄인 이든, 성도이든, 여러분, 여러분은 이 행동들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몇 분이나 아십니까? [“아멘.”] 그건 성경입니다, 창세기, 한 16장쯤 될 겁니다.

<sup>208</sup> 보시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

운 히브리 여자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 “이 여자는 내...” 사라는 말하기, “저 사람은 제 오라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여자는 내 여동생입니다.”

<sup>209</sup> 그래서 아비멜렉은 말하기, “그렇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여러분 남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sup>210</sup> 그래서 그 날 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아,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 그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는 죽으리라.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Eng. p. 32)

<sup>211</sup> 아비멜렉은 말하기, “주여, 당신은 제 온전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말하기, “그 여자가 그 사람은 자기 ‘오라비’라고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sup>212</sup>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네 온전한 마음을 아노라, 그래서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않게하려 내가 막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말씀하시길,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내 선지자니라. 그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너의 제사장말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 나라는 멸망하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너의 온 나라는 끝장이다.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이고, 그는 내 선지자니라.” 아멘. 그건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sup>213</sup> 이제 보면, 사망은 초래되었습니다. 사망은 여자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를 통해서이지 남자를 통해서 나온게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그 여자에 의해서, 모든 죽음이 옵니다. 여자가 생명을 주는 방법은 사망입니다. 몇 분이나 그걸 아십니까? 성경구절을 적고 싶으시다면, 읍기 14장입니다.

<sup>214</sup> 이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경구절들을 다 적어 왔습니다.

<sup>215</sup> 여러분 거기 있는 읍기 14장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맞습니까?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잘려 쇠하여지고,” 등등. 아시겠죠?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나오자마자 사망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sup>216</sup>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태어나면,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다른 나무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나무에서 나옵니다.

<sup>217</sup> 여러분은 밀하길, “오, 이브는 나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들은 밀하길, ‘너희는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창세기 거기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sup>218</sup> 정말로, 여자는 나무입니다. 여자는 과실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 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매는. 여자를 통해서는 사망이 오고, 원 창조에 있던, 남자를 통해서는, 생명이 옵니다. 여자에게서 나는 것은 사망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여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아시겠죠?

<sup>219</sup> 첫 아담과 이브는 두번째 아담과 이브를 예표했습니다, 보십시오, 증가는. 자 아담과 이브의 증가는, 이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씩만 만드셨습니다,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교회와 똑같이. (Eng. p. 33)

<sup>220</sup> 이제, 이 하나님의 입증된 진리들에 비추어서, 몇 가지 살펴봅시다, 원하신다면요. [회중이 “아멘”한다--주] 좋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그것의 진리를 보여드리겠

습니다.

<sup>221</sup> 성직자는 과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 21:7 그리고 에스겔 44:22입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에게 성직자는 남자의 손길이 닿은 여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신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불을 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오까지는 마쳐야 하는데, 이십 분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불을 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남자가 손댄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자와, 남자의 손이 닿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로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인간의 손길로 조종되는 교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sup>222</sup> 보십시오, 여기 이것을 읽읍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써 왔는데...

<sup>223</sup> 저는 남자들에게만 말할 것들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는 그것을 말할 시간이 너무나 없군요. 하지만 저는 ... 전에 여기로 나가고 싶습니다.

<sup>224</sup> 자, 자매님,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위치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그 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sup>225</sup> 마태복음 5:32. 여길 보십시오, “하나”와 “많은”의 생각을 지지하려고. 마태복음, 삼십... 처음에, 마태복음 5:32, 31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 줄 것이라 하였으나

<sup>226</sup>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는”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왜죠? 그 여자는 재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베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 니라(Eng. p. 34)

<sup>227</sup> 보십시오, 여자가 남편이 살아 있으면, 어떤 남자도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이든지간에, 그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다면, 그 여자는 절대로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연속성을 가지게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남자가 재혼할 수 없다고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것은 남편이 재혼하는 것에 반대하려고 쓰여진게 아니라, “아내”를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예표로 나온 겁니다.

<sup>228</sup> 보십시오, 그것은 남자가 재혼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직 처녀에게. 그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녀라면,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아내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는 간음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베린 여자와 결혼하는 자마다 간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이 아닙니다.

<sup>229</sup> 저 옛날, “태초부터”, 저 원래 그것을 보십니까? 재혼하는 일, 자 보십시오, 남자는 재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못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경에 계속 나오는것처럼, 자, 다윗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sup>230</sup> 자 고린도전서 7:10을 보시면, 바울은 남편과 이혼한 아내는 혼자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고, 재혼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보십시오. 여자는 혼자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해야만 합니다. 여자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혼자 지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은 남자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이 거짓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다처제로 성 법률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연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실합니다

<sup>231</sup> 그 문제를 두고 학파들이 동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려면, 진리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sup>232</sup> 그것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통상 언약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초 전에, 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자연에서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모든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도 그런데 육적인 살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포유동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연은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sup>233</sup> 그러나 이제 일곱 인이 열렸으므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말씀의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모든 실수들이 시대들을 걸쳐 전수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이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sup>234</sup>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림자들이 실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바닥에 드리우는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림자는 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죄그맣고, 깡 마른 남자가 걸어나오는데 어떻게 바닥에 코끼리의 그림자가 되고, 아니면 코끼리의 그림자가 조그맣고, 깡마른 사람의 그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Eng. p. 35)

<sup>235</sup> 자 그걸 완벽하게 예표로 나타낸 것을 보시면.

<sup>236</sup> 자, 진실한 여자, 진정한 여자, 처녀도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결혼해서 살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는 축복스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아내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걸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sup>237</sup> 그러나 여자는 성 행위를 위해서 지음 받았고, 다른 어떤 동물도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쳐제를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쳐제를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sup>238</sup> 자 보십시오, 마지막 분석입니다,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한 남자, 하나님,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하지만 그의 아내의 지체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수천 수 천 수천명입니다 (맞습니까?), 그의 아내, 신부, 교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sup>239</sup>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행위가 초래되기 아니 도입되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담이 아직 태초에 있었고, 아직 자기 안에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에 말입니다. 거기서, 신부는 말씀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번성하여, 번성, 그렇죠, 땅을 충만하게 해야함을 보여 줍니다.

<sup>240</sup> 그런데 성행위를 두고, 아시겠죠, 학파들은 그 두 가지를 혼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있던”, 그것의 진리에 그것을 돌이켜야만 하는 겁니다.

<sup>241</sup>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한 분 주 예수가 계실 것이고 그의 신부는 많지만, 하나일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한 사람으로 한 보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한 왕이 오백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년 왕국 때, 자기 보좌에 앉으시고 한 명의 아내를 두실텐데;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부활 때,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는데,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sup>242</sup> 여자분들, 그렇게 되려고 분투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

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교인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해내지 못할 겁니다. 남자분들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sup>243</sup> 이 결혼과 이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알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예표들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이루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음행을 하든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분을 버리고, 해내려 하십니까?(Eng. p. 36) 남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림자들과 예표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원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부산물은 아무데서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신부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매 번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브래넘형제가 설교단을 다섯 번 두드린다--주] 맞습니다.

<sup>244</sup> 그러나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명심하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일부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부산물이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sup>245</sup>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라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유한한 인간으로 앉아서, 고기를 드시고, 빵을 드시고, 우유를 마시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왜 사라가 저 뒤에서 웃었느냐?” 하나님의 뒤에 있는, 장막 안에서죠, 하나님은 결코 사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sup>246</sup> 사라는,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리를 죽이실 수 없었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사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sup>247</sup>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분들이여 아담한 옷을 입고, 자기 남편에게 정직하고 진실 되며, 그를 너무도 사랑하여 그를 '주'(지배자, 소유자)라 칭한 사라처럼 되십시오."

<sup>248</sup> 그런데, 여러분 중 어떤 여자분들은, 이런 형편없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서 남자 앞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누가 죄가 있습니까, 그 남자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는 남자이므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자이므로, 거절해야 만 합니다.

<sup>249</sup> 왜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내놓습니까? 편하지는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그런 짧은 옷을 입으면 반은 꽁꽁 얼을테니까요. 그렇죠,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더러움을 위한 겁니다!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더러워지길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더럽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Eng. p. 37)

<sup>250</sup>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 늙고, 더러운, 유통불통한 무릎을, 만일 그 남자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몸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죠? 그는 원 창조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산물입니다, 유혹을 하기 위해.

<sup>251</sup>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저는 그 세상이 끝나면 기쁠 겁니다.

<sup>252</sup> 보십시오, 그는 아무 때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를 만들 수 있고, 저를 아무 때나 정해진 때에 흙 속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 형제님, 저는 그를 거기에 던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겁니다, 저는 끝장납니다.

<sup>253</sup> 솔로몬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처녀인 한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sup>254</sup> 다윗처럼, 다윗은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겠죠?)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미련한 자”라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좋은 부인이 있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sup>255</sup>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손을 대었고 아니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처녀성을 보여줍니다, 신부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어야 하며, 어디서든지 한 말씀도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한 쪽 가슴이 잘려져 없고, 또 다른 쪽은, 또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아시겠죠, 그런 신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벽합니다. 신부는 모든게 말씀이고, 어디서도 한 말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안 어긋납니다.

<sup>256</sup> 보십시오, 그는 신부를 버릴 수 있지만, 신부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루터, 웨슬리, 오순절이, 그들이 영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말씀의 더 많은 부분으로 임신하여 주님의 더 많은 일부가 되기를 거절했을 때, 그렇게 하셨고,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루터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더욱 원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쨌

든 절 뭐라고 부를 거니까, 오늘날도 그들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sup>257</sup> 그런데 남자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것을 거절하는 여자는 그에게 아내 될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 에스더와 결혼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왕은 그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나와서 왕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되기를 거절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sup>258</sup>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임신하여 이 시대의 자녀들을 낳기를 거절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루터교인도 아니고, 웨슬리교인도 아니고, (Eng. p. 38) 오순절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자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하여, 이 시대의 아이를, 씨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셨죠? 그녀를 버려, 이혼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sup>259</sup>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을 동일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완전히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좀 더 그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자녀가 되지, 교회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신부는 더럽혀지지 않은, 어느 인간의 조직도, 어느 인간이 만든 신학도 손이 닿지 않은, 사랑스러운 작은 말씀의 숙녀일 것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말씀의 신부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음성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임신한 딸일 것입니다.

<sup>260</sup> 여자가 얼마나 큰 영예가 될 수 있는지 보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더러움이 교회를 사로잡았는지 보십니까? 저 밖에 있는 그 교회를 여기 이 교회에 비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거리의 창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아니면, 여자, 행실이 바른 여자와 창녀를 비교하려고 합

니까?

<sup>261</sup> 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조의 법칙입니다. 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낮의 빛을 즐기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맑은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여자가 없다면, 진정한 여자를 즐기고 존중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sup>262</sup> 계속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며, 그러나 우리 중 누구라도 감히 주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sup>263</sup> 자 분명히 왜 두 이론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쪽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극단입니다; 저 쪽으로도 가게 두면, 그것은 약속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약속이 있고, 바로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19절이 사도행전 2:38에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sup>264</sup> 자, 여러분들 중에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몇 분은, 저-저는 여러분이-여러분이 그 말씀을 찬성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 못하십니다.

<sup>265</sup>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일 마태복음 28:19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돌아서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과는 다르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 시대를 다 거치고, 성경 시대 후에 니케아 공의회 때까지, 삼백년 동안은. 그 다음에 그들은 대신 독단적인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그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Eng. p. 39)

<sup>266</sup> 여러분 책 전체, 성경 전서는 계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는 반드시 말씀과 맞

아야만 합니다. 말씀과 모순이 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말하길, “어, 그것은 제게 계시되었습니다.” 만일 그게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sup>267</sup> 자 마태... 마태복음 16:18을 보시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직접, 전 교회는, 그의 교회는 말씀이신 자신에 대한 영적 계시 위에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게 이것을 계시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네게 계시하셨도다. 이 반석 위에...”

<sup>268</sup> 자, 저는 압니다, 거기 우리 카톨릭교인이신 친구들이, 여러분은 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동의, 계승으로, 아무-아무개가.”

개신교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sup>269</sup> 달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하시길,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계시한 것이라. 이 반석 위에, 말씀에 대한 영적인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어놓지 못하리라.”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하리라.”

<sup>270</sup> 예전 동산에서, 아벨과 가인은.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 말하길, “자, 보아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콩과 감자를 가져가야지, 꽃도 좀 가져다가, 주님께 아주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는 무릎을 끓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고, 양 손을 올리고,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한 모든 종교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sup>271</sup> 아벨은 똑같은 종류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어린 양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인은, 죄에 대한 항생제로, 그 동산에서 배운대로, 그의 부모가 과일을 먹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러나 아벨은, 신성한 계시를 받고, 그 일을 한 것은 피였음을 알았습니다. 신성한 계시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시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맞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아멘! 형제님, 자매님,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sup>272</sup>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계시되어야만 합니다. 계시될 때까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모든 감춰진 비밀이 계시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분이나 그 걸 아십니까?(Eng. p. 40) 계시록, 10장입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런 모든 감춰진 비밀들이란다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런 모든 비밀들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음성이 나서 말하길, “투산으로 가라.”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그 신비한 빛, 거기 서 있던 일곱번째 천사를 기억하십니까; 돌아와서 일곱 인을 열었던 것을요? 일어난 일을 잘 보십시오. 그건 사실입니다.

<sup>273</sup>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갑시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회중이 “아멘”한다--주]

<sup>274</sup> 자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 위치에 있으면, 그 여자는 보석입니다. 솔로몬, 만 명의 아내... 아니 천 명의 아내가 있었던 이 남자는, 그는 말하길, “아내를 찾은 자는 좋은 것을 찾은 자니라.” 그는 말하길, “좋은 여자는 그의 면류관의 보석이라,” 그건 영예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의 피 속에 있는 물이라,” 피는 그의 생명입니다. 그는 말하길, “천 명 가운데 의로운 남자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하길, “천 명 중에 의로운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sup>275</sup>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러분은 보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여러분이 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옛날로 가리키신 이유를 아시겠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것은 여자에 의해서 모든 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처제와 이혼과 그런 것들이 도입된 겁니다. 처음에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sup>276</sup> 족장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적어도 열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자매와 결혼했고, 그 외에 함께 살고 있던 상민인 여자들을 첨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바로 그 첨의 소생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회중이 “아멘” 한다--주] 아시겠죠, 말씀이 매끄럽게 연결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sup>277</sup> 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여러 장을 적어왔습니다. 성직자 중에 그것에 대해 묻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는 바로 여기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sup>278</sup> 좋은 여자는 좋은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진정한 여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어느 남자들만큼 진실한, 진정한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sup>279</sup> 여자는 부산물이고 남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타락할 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여자는 남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달렸습니다, 여자는 더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거절할 권리도 있고 받아들일 권리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있던 원래 성품과는 반대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Eng. p. 41)

<sup>280</sup> 자 12시군요, 잠시동안 여기에서 뭘 좀 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묻고 싶습니다.

<sup>281</sup> 자, 명심하십시오, 저는 저의 무리들에게만 이 말을 한다는 걸요. 방

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저는 오직 저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sup>282</sup> 어느 목사님이건, 그가, 그건 그의, 네, 그는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어느 신부님이든지, 설교자이든지, 형제님,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sup>283</sup> 저는 여기 제퍼슨빌에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유일한 곳인 이유는 제 자신의 양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감독하고 주시고, 저로 책임지게 하실 양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국에서 제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온 개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돋기 위해서 여기에 있고, 저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내 심판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sup>284</sup> 이 말은 무척 강한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제 회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두 번 또는 세 번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남녀들입니다, 모두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일을 했습니까? 거짓 가르침입니다, 정확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sup>285</sup>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짹지어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짹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여러분의 아내라고, 계시를 직접 받으셨다면, 그리고 똑같이, 그가 여러분의 사는 여생에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인간이 짹지운 것은, 아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짹지워준 것을,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짹지워주신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술에 반쯤 은 취한 시장이나 어떤 누군가가 짹지어준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타락한

설교자가 세상에서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고 하는 책에 적힌 여러 신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내팽개쳐 있고. 아시겠죠?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짹지워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up>286</sup> 이제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칠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신 형제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손에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리고 만일... 저는 그 말씀을 담아두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테이프가 앞으로. 오, 세상에, 저는 사무실 문을 열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sup>287</sup> 뱀의 씨에 대해서 그랬듯이, 그것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문이, 신문에서 오려낸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자들이... 심지어는...에서... (Eng. p. 42) 어느 주교 관구에서 그 사진들의 원판을 가지고 있는데, 뱀이 어느 여자의 다리를 기어가, 그녀를 휘감게 되면, 그 여자는 온갖 감통을 가지고 그러는데, 남자는 결코 손도 대지 못할 감통이고, 이 거대한 뱀이 그 여자를 휘감고,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뱀은, 그가 뱀이었을 때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sup>288</sup> 저는 며칠 전 논쟁을 벌이고 있었... 논쟁이 아니라, 어느 하나님의 성회 목사님과 친구분, 말씀하시길, “당신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말하길, “글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죠.”

<sup>289</sup> 그 때 그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가 말하다가 논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하길, 그는 말하길, “브래넘형제, 그 종(種)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 ‘그의 종류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과학도 발견할 수 없는, 당신이 인간과 짐승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죠?” 말하길, “그가 땅 위에 있습니까? 침팬지입니까?”

<sup>290</sup> “아뇨, 침팬지의 피는 여자와 섞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동물도 여자와 섞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남자의 정자도 암컷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sup>291</sup> “그럼 그 특정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각자 종류대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sup>292</sup>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부드러움이 말씀하시길, “그에게, ‘그것은 여기에 있다’고 말해라.”

자,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것은 그동안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는 말하길, “하지만, 브래님형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sup>293</sup> 저는 말하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길, “물론, 그들은 공룡과 맘모쓰, 기타 등등, 맘모쓰, 맘모쓰같은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분명한 겁니다, 등등.” 저는 말하길, “그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sup>294</sup> 그는 말하길, “브래님형제, 우리는 지금 말씀의 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가 여기 있다면; 그러면, 원죄는, 그것도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sup>295</sup> 그래서 저는 말하길, “주 예수님, 당신은 ‘너희가 사람 앞에 나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뭘 말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것은 여기에 있다.’고 말해라.” 제가 강대상에서 환상들을 보는 것과

똑같이]. (Eng. p. 43)

<sup>296</sup> 저는 말하길,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는 말하길, “어디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도 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뱌입니다.”

<sup>297</sup> 정말로 뱌이었습니다. 그는 더이상 짐승이 아닙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남은 날을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 뱌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그런데 여전히 그가 행한 그 행위에는, 여자 주변에는 여전히 동일한 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남성처럼 그렇게. 그녀가 어느 남자도 줄 수 없는 감흥을 얻을 때, 여자는 눈을 크게 뜬다든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sup>298</sup> 저는 거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분들 몇 분을, 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문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 전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전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sup>299</sup> 이 말은 제 교회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라... 저를 믿고 따르는 작은 양무리들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sup>300</sup> 며칠 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그것은 **주께서 가라사대로 와야 함**을 알고서, 그 때 저는 주님이 제게 계시해 주신대로 성경구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 그 회중에게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례들이 일어날텐데요. 남자는 바깥 마루에 앉아서 놀어서, 아니면, 어디든지, ‘그녀를 떠나야 할까?’하고, 여자들은, ‘내 남편을 떠나야 할까?’ ‘어떻게 하지?’ 할텐데요.” 저는 말하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up>301</sup> 뭔가가 제게, “저 산 위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얘기하겠다.” 하셨습니다.

<sup>302</sup> 그런데 제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동안, 저 아래 투산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을 불러서... 제 딸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나와, 그런데 말하길, “저 산을 봐라! 공중에 불같이 생긴 주황색 구름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하지.”

<sup>303</sup> 예반스부인, 여기 계십니까? 라니, 여기 있어요? 저는 주유소에 내려왔습니다. 주유소에서 있는 이 청년은, 거기 그 예반스 주유소.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는 저를 따라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님형제, 저 위에 산에 계셨다 오셨죠, 그렇죠?”

<sup>304</sup> 저는, “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냐,” 아시겠죠, 그가 어떻게 하느지 보려고 그런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말을 안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길, “라니, 무슨 말...”(Eng. p. 44)

<sup>305</sup> 그는 말하길, “형제님이 계셨던 곳을 저는 가리킬 수 있어요.” 말하길, “저는 엄마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서서 그 구름이 거기에 머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브래님형제가 저기 어딘가에 앉아 있음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하고 말했죠.”

<sup>306</sup> 그래서,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인데, 이 커다란 주황색 구름이 거기 머물러 있었고, 깔대기같이 내려와서는 돌아가 다시 퍼졌습니다.

<sup>307</sup> 친구분들, 이제 저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제게 계시되고 있던 때인데, 지금 당장 제가 여러

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sup>308</sup> 지금 저는 우리를 따르는 분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 메시지를 따르는 분들에게만,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무리들에게만요!

<sup>309</sup> 지금 우리는 잘못 해석된 신학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된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두번째 결혼을 하셨고, 남자분들도, 잘못 풀이된 신학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sup>310</sup> 만일 우리의 창조주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땅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의 구원하는 선지자 모세가 왔을 때, 저 아래 애굽에서, 자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그들을 약속된 땅에 데려다 주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혼 중서를 써 주기를 허락했는데, 그 상황이 그랬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로...”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파송된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혼중서를 써 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sup>311</sup>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 12절과 15절에서, 신약의 선지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지,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까? 이혼 사례 때문입니다.

<sup>312</sup>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교회 안에서 그런 상태를 보았을 때, 권리가 있었습니다.

<sup>313</sup>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임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시오! 그의 구름과 지금까지 제게 주신 그분의 메시지의 입증으로, 산 위에서 하나님은 제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지내게 하고, 더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가셔서 평안히 사십시오,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니다. (Eng. p. 45) 주의 강림이 가까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깨뜨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감히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회중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서 제게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일곱 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문이므로, 이것을, 영적인 계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현재의 상태대로 지내고, 더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라!”

<sup>314</sup>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저를 그분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어쩌면, 제가 그 일을 하도록 파송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가 올 때를 위해서 기초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상황 하에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 부인과 함께 집으로 가시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녀와 사이가 좋다면, 그녀와 함께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결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훈계로 그들을 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현재의 여러분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늦은 저녁 시간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풋대를 향해 죽어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sup>315</sup> 오늘밤 다시 만날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sup>316</sup> 주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모세를 참아주셨던 동일한 위대한 여호와이십니다. 그 종 모세가, 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모세에게 이혼 중서를 써 주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약을 기록한 것처럼, 신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모세는 율법을 썼고 율법의 경륜.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이 그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세가 써 주어, 그들에게 이혼 중서를 써 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sup>317</sup> 위대한 성도 바울은, 신약을 기록한 자인데, 역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sup>318</sup> 주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확신하기로, 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 설교를 불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증거하시려고,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산 위에 있던 그 표징도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회오리 바람 안에서 오신 산, 일곱 천사로 오셨던 산, 일곱 비밀들을 계시로 펼쳐 주시던 곳, 그 동일한 천사,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산 위에서, 이 말씀이 계시되었던 그 날!(Eng. p. 46)

<sup>319</sup>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귀가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허락을 받아, 그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허락을 받아,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죄를 행치 않도록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어떤 죄도 짓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주의 훈계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sup>320</sup> 왜냐, 제 마음 속에 있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주 동안 저와 싸웠고, 수십 시간을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연구해 보고, 가서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제 제 어깨에서 내려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sup>321</sup>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놓여진, 이 손수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모든 사람들이 낫는 위대하고 강력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sup>322</sup>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 이후”를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펼치사, 우리가 영망인 채로 살고 있는 곳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그의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평안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는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를 사랑해, (여러분 주님을 왜 사랑해서는 안됩니까?)

주를 사랑해

날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 구원을 사셨으니

갈보리...

<sup>323</sup> 저는 지금 목사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말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이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한 것입니다!

<sup>324</sup> 오,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회중이 “아멘”한다--주] 저는 지금까지 내내, 주께서 가라사대를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sup>325</sup> 이제 “주를 사랑해”를 다시 부르면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듭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인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인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왔습니다!”

주를 사랑해.

<sup>326</sup> 형제님, 나오세요. [브래님형제가 누군가를 나와서 폐회하라고 한다--주]



## 결혼과 이혼

Marriage And Divorce, Vol. 3 No. 13R

이 메시지는 윌리엄 매리언 브래넘 형제가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있는 파크뷰 중학교 강당에서 1965년 2월 21일 일요일 오전에 전한 영어 설교인데,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구두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무료로 배포되며, 믿는 분들의 자원하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 **Copyright notice**

All rights reserved. This book may be printed on a home printer for personal use or to be given out, free of charge, as a tool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book cannot be sold, reproduced on a large scale, posted on a websit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or used for soliciting fund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Voice Of God Recordings®.

For more information or for other available material, please contact:

**VOICE OF GOD RECORDINGS**  
P.O. Box 950, JEFFERSONVILLE, INDIANA 47131 U.S.A.  
[www.branham.org](http://www.branham.org)